

“ 겸손의 길 ”

■ 이종윤 원로목사

그리스도의 제자는 겸손과 순종의 덕성으로 주님을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순종은 어려운 일이다. 사랑과 믿음이 없는 순종은 굴종이나 위선이다.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험난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은 길이다.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닦으신 주님의 섬기는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그의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한 이들이 질투하며 다투었다.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전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간청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다. 어린아이같이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겸손은 섬김에 우선된다. 어린아이나 노예처럼 낮아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섬길 수 있다. 우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네 개의 짐을 던져버려야 남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다.

첫째, 교만의 짐(the burden of pride)을 던져 버려라. 겸손은 교만의 반대어다. 우리를 공격해 온 사람에게 우리의 교만한 반응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가? 자신을 작은 왕으로 여기고 자신을 우상처럼 왕처럼 처신하고 대해주기를 바라지 않았던가. 자기를 비방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한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은 자기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교만의 탈을 벗어버릴 때 가능한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따라 예수님께 굴복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어 사람 앞에 큰 자로 설 수가 있었다.

둘째, 위선의 짐(the burden of pretense)을 벗어버려라.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있는 것을 숨기려 하는 위선의 짐을 버려야 겸손해진다. 사업에서 조금 성공한 사람이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처럼 우쭐거리며 행세하려거나 자신을 선하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없다. 지식은 짧고 경험도 미천한 이가 더 많은 교육과 경륜을 쌓은 이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 한다면 꼴불견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인이 못되었으면서 문화인인체 외모를 꾸미고 행세를 하려는 위선자는 겸손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진실이 없고 빈수레처럼 잡소리만 낸다. 자신이 실제로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장을 한다. 자신이 정보에 어둡고, 신앙생활 철학도 없는 미숙한 사람, 세련되지 못한 사람 취급받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문제는 자신은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우리는 부패했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없이 안 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도 한다고 핑계를 댈다. 만물보다 거etz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 주여, 저는 죄인이라소이다 참회하고 부복해야 한다. 우리의 기본 죄는 다른 사람 앞에 죄를 감추고 목을 곧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이미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올 때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 해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외식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될 것이다.

셋째, 인위적인 짐(the burden of artificiality)을 벗어던지라. 외식과 비슷하지만 실은 다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하며 강한 체하는 진실이 결여된 이에겐 겸손이 없다. 인위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한다. 십자가는 사실이다.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속이는 것과 악은 소멸되어야 한다. 진리 앞에 겸손하고 사실 앞에 정직해야 한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넷째, 자기 성취를 위한 투쟁의 짐(the burden of self-struggle)을 벗어버려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인정받기 위해 자신과 투쟁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교만에서 흘러나온 자기 성취를 위한 노력과는 다르다. 자기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 즉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야 겸손해진다. 교만, 위선, 인위적 꾸밈, 자기 성취욕에서 벗어나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시작할 때 따르기 어려운 겸손의 길을 예수님처럼 걷게 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제1344호] 2012년 11월 17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Dong Woo Park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12:24-27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Congregation
Sermon	“One Body, Many Parts” Rev. Euichang Kim
* Hymn	286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해정), 양재성이(한주(카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해정, 우상식(김경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형평(러시아), 하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 오정혜(캐나,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보이), 필리몬, 프란시또, 수레리, 수비쓰, 알로롱,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롱, 수르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만(홍성일(말리우), 이재물(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현(미디가(스카리




천국시던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

■ 마 28:16-20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어느 산 위입니다. 마태는 이 부분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뵈옵고 경배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근황을 전하는 정도를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변화하는 계기를 맞게 된 것을 말합니다. 사실 갈릴리 산에 모여든 무리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저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 예수님의 우주적 권세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단순히 힘에 의한 권리가 아닌, 신적인 권위, 지배하시고 일하시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을 지배하는 우주적인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마 11:27, 요 17:2)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은 예수님 자신도 알고 계셨고, 열두 사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행 2:14, 36, 벰전 3:22)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잠시 육신을 입고 계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어서 인간적인 고통과 시련을 받으셨으며,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심으로 원래의 영광과 전지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우주적인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2. 그리스도의 3대 권세

예수님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 사망을 이기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또 누려야 하며, 최후의 소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1) 죄 사함의 권세

죄는 한번 시작되면 이 세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없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꿈에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므로 타인을 용서함에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2)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권세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로 읽는데, ‘둘로 갈라놓는 일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고발하는 참소자, 적의를 가지고 헐뜯고 고발하는 자’란 뜻입니다. 이는 불신자의 앞잡이로 수많은 악한 마귀들을 거느리며 수많은 악행과 괴롭힘을 일삼는 자로써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초기부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마귀의 시험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마침내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삼 일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가 가진 권세까지 물리치시며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안에 거하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3) 사망을 이기는 권세

사망은 우리의 최후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망권세가 결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요 10:17)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권세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20)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생소한 땅으로, 생소한 문화권으로 가서 그 땅의 민족들에게 생소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맺는 말

예수님이 우주적인 권세로 우리들을 파송하고 계시는데 우리 앞에 거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따라 서울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서울교회를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원수를 이기는 능력의 삶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박순오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안인호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인 도 자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42:1...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31(시 68)...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87(20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엡 1:3-14...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박순오 목사
 (The Blessings of God for Christians)

* 찬 송 Hymn435(492)...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93:1-2 인 도 자
 찬 송 20(41) 다 함 께
 기 도 임선철 집사
 성 경 ... 창 11:26-12:4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데라, 아브라함(소명과 사명1)” ... 설 교 자
 * 찬 송 204(379)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김해영 권사
 성 경 막 6:47-5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도리어 그 마음이”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 한나 전도회 10월 월례회 / 13일(주) 오후 3시15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리브가 전도회 10월 월례회 / 13일(주) 오후 3시30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사명자대회 준비 모임 / 13일(주) 오후 3시30분 후문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이번 주 상담은 정현구(치과), 오병호(피부과) 입니다. (의료상담 오전 10시-11시)
다음 주 상담은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전화 예약 010-2728-5939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

14. 금일 세례식 문답 실시 / 10월 세례식이 10월20일(주) 저녁 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로서 문답청원서를 작성 제출하신 분은

세례를 위한 문답을 위해 10월 13일(주) 오후 1시20분까지 105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1시30분부터 문답 총 정리가 있으며 바로 리허설 후에 2시부터 바로 문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010-7743-32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5.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신 박순오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장 레

- 故 이강진 장로(1교구 송미령 권사의 부군, 이신혜 성도의 부친, 김동준 성도의 장인, 이신영, 이신재 성도의 부친) / 10일(목) 별세, 12일(토) 천국환송예배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45명	226명	197명	1,268명	114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0/6)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0월6일	헌 금	51,626,350	
	교회학교운영비		2,125,000
	경 조 비		750,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104,300
	통 신 비		374,060
	차량유지비		492,340
	소모품비		96,140
	식당운영비		1,265,800
	잡 비		2,200,000
	합 계	51,626,350	7,657,640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수요 I 부					성구			
수요 I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